

民主福祉 국가의 건설

㊦

金斗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회견내용 중 중요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지금 특수한 安保狀況에 놓여 있으며, 국제적 조건이 크게 바뀌고 安保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生存을 보장하고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장한 각오와 국민적인 団結이 요구된다.

●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 새 시대의 國家指標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民主政治의 土着化

② 福祉國家의 建設

③ 正義社會의 구현이 80年代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目標과 方向이 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를 土着化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민주統一에로 이어져야 하며 이 땅에서 同族相殘의 전쟁을 막으면서 민주적인 統一한 국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민족 의지는 끈질긴 인내 속에서 平和의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南北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體制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開發惠澤을 고루 누려 상호 신뢰가 생기고 계층간에 違和感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統合의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 不正·不義·腐敗를 추방하지 않고서는 80년대에 있어 올바른 민족 正氣를 고양하고 統一 의지를 구체화할 수 없으며 福祉사회를 건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 改革작업을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이 나라의 국민적 統合과 사회안정,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大統領中心制가 가장 바람직하다. 大統領선거는 國論분열과 타락을 방지하면서 自由경쟁을 통해 국민의 意思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검토중인 間選制도 중전의 국민회의에서

처럼 특정후보에 대한 信任투표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國會 또한 직업정치인이 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철저한 公營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의 意思를 제대로 여과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 崔圭夏대통령이 밝힌 정치일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일정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다.

국가安保나 경제발전 등 기타 모든 점을 위해서도 過渡期의 상황은 빨리 극복될수록 좋다.

●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는 10·26사태 이후 國基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救國의 신념으로 발족되었다. 앞으로도 사회개혁의 의지로 과업을 계속 수행해서 새 시대의 새 기풍을 정착시켜 나갈 작정이다.

● 80년대의 우리 경제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놓기 위해서 복지 민주국가건설에 부합되는 새로운 경제구상과 새로운 획기적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知識人들의 批判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현실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것이어야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파괴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라와 민족이 전제할 때 지식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합된 의지로 새 歷史 창조

國保委가 발족된 이후 괄목할 만한 社會改革 작업의 전개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國保委를 만들고 맡으셔서 노고가 크신 全위원장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종건 싫건간에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소장군에 대한 국민적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줄로 압니다.

먼저 새 시대로 이어질 80년대에 예상되는 國內外 정세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떠맡겨질 課題는 어떤 것이지요.

80년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오늘의 狀況展開가 뜻하는 80년대의 歷史的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에는 그동안 國際政治와 世界經濟를 지탱해 오던 體制와 制度, 그리고 여러가지 條件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는 戰後秩序의 붕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일어났던 오일쇼크의 연속이나 世界經濟의 不況, 그리고 國際政治의 激變 등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試鍊을 겪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70년대는 하나의 民族史의 分水嶺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특히 10·26사태를 고비로 70년대가 한 時代의 마무리를 지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의 世界環境이나 우리나라의 조건은 많은 變化가 예견되며 너무나 많은 不確實性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80년대는 어떤 의미에서 70년대보다 더욱 격동하게 될 것이고 70년대와는 다른 狀況이 전개되리라고 보읍니다.

70년대가 이른바 戰後體制의 전면적인 붕괴라고 인식된다면 80년대는 새로운 秩序의 모색 내지 構築期라고 할 수 있읍니다.

새로운 國際政治秩序와 世界經濟體制가 모색되고 구축되는 양상이 80년대의 激變속에서 특징적으로浮刻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秩序와 體制를 모색하는 時期에는 더욱 많은 危機가 결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直視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勢力쟁탈전이 곳곳에서 戰爭의 위기를 加重시킬 것이며, 國際政治에 여러가지 마찰

적 요인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世界經濟도 근본적인 構造변동과 새秩序 모색의 엄청난 陣痛을 예상케 해 줍니다.

사실상 中東을 에워싼 美·蘇의 각축이나 아프간 事態, 그리고 極東에 있어서의 蘇聯의 軍事力 강화 등은 심각한 危機的 양상을 우리에게 示唆해 주고 있읍니다.

게다가 80년대는 美·中共·日本 관계에 있어서의 新時代의 전개로 특징지어질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80년대의 우리의 周辺環境에 大變化가 휘몰아쳐 오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北傀의 威脅을 받고 있는 특수한 安保狀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조건이 크게 바뀌고 安保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生存을 보장하고, 장래를 期約하기 위해서는 매우 悲壯한 각오와 국민적인 團合이요 구된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도 80년대는 70년대와 다른 새 時代가 될 것입니다.

80년대에는 새 秩序가 수립될 것이고, 70년대와 다른 새 時代가 될 것입니다.

80년대에는 새 秩序가 수립될 것이고, 새로운 國家指標가 요청되며, 새로운 民族史의 展開가 予見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課題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새 歷史·새 社會를 창조하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福된 未來가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社會淨化 運動으로 福祉國家建設하자